

4년차 아트제주 순항 속 제주섬 미술 장터 '희비'

시민회관 페어 올해는 쉬고 내년부터 제주시 주최 예정 셋물골 제주아트페어도 휴식 아트제주 25개 갤러리 참여 11월 28일부터 4일 동안 운영

제주섬 미술 장터가 희비를 겪고 있다. 일부 아트페어는 휴식을 갖거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다.

제주시 이도1동 주최로 제주시민회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까지 4차례 치른 제주국제아트페어는 올해 심표를 찍는다. 이도1동이 아니라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아트페어를 맡기로 했고 그에 따른 준비를 이유로 이번은 행사를 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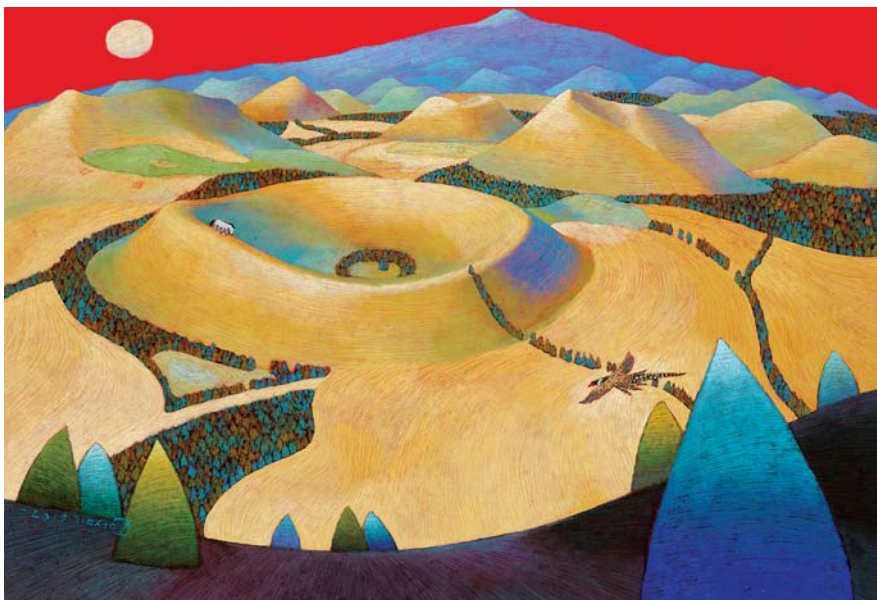
제주시는 내년 사업비를 감절 키워 제주시민회관을 거점으로 원도심까

지 넓은 아트페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짰지만 제주도에 반영된 금액은 종전과 같은 2억원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처럼 축제 성격이 더해진 '제주국제아트페어&페스티벌' 명칭을 유지할 계획인데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 결과가 나오면 2020년 일정, 장소, 추진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그보다 앞서 2014년 제주에서 처음 생겨난 아트페어인 제주아트페어도 올해 멈췄다. 칠성로 숙박업소들이 몰려있는 일명 '셋물골'에서 그 일대 여관방을 전시·판매장으로 변신시켰던 제주아트페어는 지난해까지 다섯차례 개최됐다.

제주에총이 작년 칠성로 상점가 등을 배경으로 첫선을 보인 제주해질골 아트페어도 중단됐다. 공모 사업으로 벌인 행사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섬아트제주가 주최·주관하는 '아트제주2019'는



2019아트제주 제주작가 특별전에 참여하는 김성오의 '오름 섬'.

'제주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를 내세우며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메종글래드제주에서 펼쳐진다. 4회째인 이번 아트페어는 뉴욕, 파리를 포함 국내외의 25개 갤러리가 참여해 살바도르 달리, 로버트 인디애나, 제프 쿤스, 백남준 등 현대 미술품 1000여 점을 전시·판매한다.

이 기간엔 류제비, 이유미, 이유진 작가가 참여하는 '엔젤스: 미녀 삼총사' 특별전이 열린다. 제주 작가들의 국내외 진출을 위한 제주작가 특별

전에는 강술생, 고순철, 김성오, 이미선 작가가 출품한다. 작품 구입에 필요한 도움말을 들을 수 있는 '아트 컨설팅' 부스, '포마 화가' 김하민·서아린 어린이의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기부하는 특별 후원 부스인 '77번방의 선물'도 차려진다.

입장료 1만원(도민 7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rtjeju.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4)739-3373. 전선희기자

'물방울' 낚은 프랑스로 미술 여행

김창열미술관서 무료 강좌 주말엔 개관 3주년 음악회

'물방울 화가' 김창열 작가의 작품 세계를 펼쳐놓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들어선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개관 3주년을 기념해 음악회와 강좌를 이어간다.

이달 16일 오후 3시에는 미술관 야외 공연장에서 3주년 음악회를 연다. '소울 마에스트로'로 불리는 색

소폰 주자 대니정, 유명 팝페라 가수 정세훈이 출연해 감미로운 선율을 풀어낸다.

김창열 작가가 오랜 기간 머물렀던 프랑스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됐다.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광고로 보는 프랑스 미술' 주제 강좌다. 한국미술컨텐

츠연구조 정장진 소장이 강의를 맡아 광고에 활용한 시대별 명작들을 소개한다. 미술관 홈페이지(<http://kimschang-yeul.jeju.go.kr>)에서 대회 30명씩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2020년 4월 5일까지는 1전시실에서 소장품전 '물방울이 맺히기까지'가 이어진다. 문의 064)710-4140.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문화가 쫓지

백주순 여섯 번째 판화전

'실존-사소한 생각'이란 이름을 단 백주순 작가의 여섯 번째 판화전이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풍뎉이를 소재로 '사소한 생각-협오' 등을 선보이고 있다. 곤충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엔 사람의 얼굴이 자리잡고 있다. 김유정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하찮은 곤충들을 통해 추악한 진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우리 사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평했다. 이달 14일까지. 전시 기간엔 만져보는 동판과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김복신 개인전 '꽃-스미다'

김복신 개인전 '꽃-스미다'가 제주도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 작가는 고향인 제주의 꽃을 테마로 작업했다. 꽃은 작가에게 고향의 다른 이름이면서 제주인의 삶의 시간이 배어있는 곳이자 아픔을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어머니 품 같은 안식처다. 작가는 꽃이 품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뿌리면서 작업을 벌였다. 수많은 점으로 구성된 시간들은 모이고 흩어지고 스며들면서 꽃이 안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전시는 이달 14일까지.

현인갤러리 박용인 초대전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가 개관 48주년을 맞아 서양화가 박용인 초대전을 열고 있다.

박용인 작가는 사물 이미지에 대한 해부를 거쳐 재구성된 화면에 밝고 화려한 색상을 풀어놓는다. 풍경과 인물을 그리면서도 비구상화의 면모가 배어있다. '유수암리', '성산포' 등 낯익은 제주 풍경도 담겼다. 그는 "어떠한 사물이든 눈에 닿는 모든 것, 또는 실사 망막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것이라도 주제로 삼는다"고 했다. 이달 25일까지. 064)747-1500.

박병욱·양수열 부부 도예전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산업공예 99학번 동기로 현재 경기도 여주에서 세라믹스튜디오 살래를 운영하는 박병욱·양수열 작가가 연갤러리에서 부부 도예전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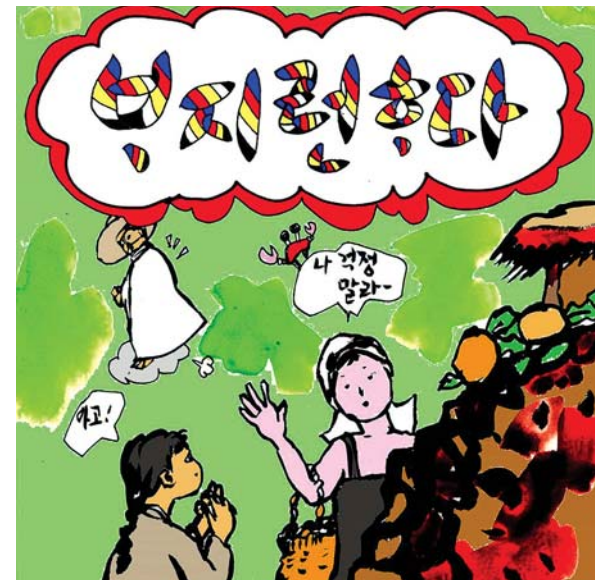
'동행'이란 이름을 단 이번 도예전에는 제주 바다생물, 오름 등 제주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차 도구가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장작가마를 이용해 유약을 바르지 않은 무유소성으로 불에 그을린 자국 등 자연스러운 효과를 낸 작품을 펼쳐놓고 있다. 전시는 이달 18일까지. 문의 010-6398-4281.

고재만의

제주어기암한판

<178>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맹이가 듣는다. "누님! 좀네질 잘 땡겨 을데강? 매역이영 어땡 따집데강? 상준네 상준네는 좀복이영 구정기덜이영 하영 흑엇지예..."
○맹이가 골멘. "○맹이아-느 생각광 흑곱 따나메. 바당 물이 출렁출렁 넘음이 하도 췌어불고게. 또시 절도 하영 높아부난게 좀네 삼춘덜토 막 심들영 흑연게. 뜬 날 추북 하영 못 흑연. ○맹이아-츠마가라. 느도 물질 흑여보카 흑염시냐? 게무로사 느가 물질 못흑느나마는 나가 부지런흑힌 뉘난 나 걱정말라. 알앗주이-?"
○맹이가 골앗져. "예-누님! 좀네질 흑젠 흑난 남이 속앓수다. 삼춘네도 하영 속앗수다게. 아고-나도 제기 췌 물양 강 물뎌역사 출닌디게."

* 제주어 풀이
*상군(상준네, 왕준네, 큰준네, 상준수) : <이름> 잠수 일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그런 무리를 가리키는 말. 해녀의 우두머리.
*골멘 : 말한다.
*츠마가라(츠마도가라, 츠마이) : <어찌>상상을 뛰어 넘는 일을 했거나 크게 놀랄 만한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을 때 못마땅하게 여겨 내는 소리. 차마.
*게무로사(겜보로사) : <어찌>아무런들, 그렇다한들, 그렇더라도.
('게무로'에 힘준이 '사'가 덧붙은 말)
*부지런하다(부지런하다) : <그림> 바지런하다. *골앗져 : 말하네
*속다(속다) : <움직>움보다. 어려움이나 수고를 당하다.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대어씨(대명사)/<겜>겜씨(수사)/<느>느씨(조사)/<토>토씨(조사)/<때>때씨(조사)/<의문>의문씨(의문말)/<속>속씨(속말)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제주학회 '제주도 보전과 개발' 학술대회

사단법인 제주학회 50차 전국학술대회가 이달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대 아라칸벤선홀에서 열린다.

오리온재단과 제주어류양식수협 후원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 주제는 '제주도의 보전과 개발(II)'이다. 정광중 제주학회장은 "1985년 제1차 전국 학술대회의 주제였는데, 제주도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주학회장을 지낸 오홍석 동국대 명예교수의 '제주도의 보전과 개발'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발표와 토론이 잇따른다. 주제 발표 내용은 제주 공동자원생태계

제도 설계를 위한 서설(장훈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병문천 복개 과정을 통해 본 개발과 보전(이재섭 제주대 한국학 박사과정), 생태 보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윤여일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공동자원과 마을의 관계 맺기-제주(하례리 마을과 효돈전을 중심으로(김자경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제주도 관광개발에 따른 갈등과 개선방안(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다. 전선희기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인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